

[스크랩] 가짜가 많습니다.

착한하늘다리 | 13.06.08 | 12

목록 댓글 0

가 가

예수가좋다오



가짜가 많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서 가짜중이 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이 아니고 시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중복을 입고 목탁을 두드리고 시주를 받아야 하는데 불경을 몰랐습니다. 그가 부잣집 대문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나다라, 가나다라, 가나다라' 주인여자가 시주하려고 쌀을 퍼 주려다 보니 가짜중입니다.

그래서 '주나 바라, 주나 바라, 주나 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짜중이 말하기를 '가나 바라, 가나 바라, 가나 바라'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그런 꼴을 보고는 '잘해 바라, 잘해 바라, 잘해 바라' 그러다 진짜 중이 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며 말하기를 '왜 만하면 주지 그래, 왜 만하면 주지 그래'라고 했습니다.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품도 가짜가 많습니다. 참기름도 가짜가 많습니다. 심지어 돈도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에 사는 자가 있고, 영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가짜는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의 여러 곳에서 엄청난 사금이 채취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동부에 있는 백인들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서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았습니. 또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서 가족들을 태우고 말을 매어 달렸습니다. 몇 달을 가야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금을 캐어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기대 속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울가나 숲 속을 찾아가서 그곳에 짐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 뒤 그는 가족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 말씀 그대로 주안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의 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하려고 저러나? 아마도 저 가족이 도착할 때쯤이면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사금을 다 캐내 가 버리고 말 거야!' 남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일이면 꼭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옛새 동안은 그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도 무사히 캘리포니아 목적지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자기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다 도착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도 골병이 들어서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자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좇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의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여기서 '생각'은 원어 적인 해석에 보면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은 곧 마음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흐름이요, 표현입니다. 생각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영을 좇는 자는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영을 좇는 자는 생명과 평안히 온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재를 의미합니다. 또 평안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즉 화해의 결과로써 얻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면 평안히 없습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 평안히 찾아옵니다. 집에 있는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부모와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따라 살았는가?'에 좌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히 없는 이유는 성령을 좇아 살지 않고 육신을 좇아 살기 때문입니다. 쉼은 주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수천 목사 설교중에서.- ⑥



예수가좋다오/는 가슴이 쨍한 감동 글과 영상 교육 자료와 명쾌한 기독교 자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글을 보시고 스크랩 하시기 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로 따뜻한 소감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기독교자료 다른글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

가짜가 많습니다.

.신천지 탈퇴자 `신천지 교리는 거짓`

[CBS 간증] 목회자 자녀였지만 무신론자, 안티기독교...

“자식·남편 다 버려도 신천지는 절대 포기 못해!”

신천지 이만희씨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이만희 교주에 ‘공개토론’ 요구

신천지 `심리검사`로 접근

Re: 금식기도는 왜 하는것입니까?

Re: 금식기도는 왜 하는것입니까?

공유만 해도 기부가 되는 착한 서비스
같이가치 with kakao



카페앱 설치하기

맨위로

Daum

로그인

PC화면

전체보기

© Kakao Corp.